

## '환경'과 '함께'라는 가치를 쌓는 바느질공방 '모아협동조합'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호 성

흔히 환경문제를 떠올리면 화석연료나 배기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 온실가스의 증가를 우려한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의외로 '패스트 패션' 과 관련된 섬유 산업의 문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패스트패션: 저렴한 가격대로 유행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옷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패션 브랜드. 자라, H&M 흔히 'SPA'브랜드가 이끌고 있다.)

원단 1톤을 염색하는 데 최대 200톤의 물이 사용되고, 의류 생산 시의 부산물인 독성 폐수량은 연간 2만 2천톤으로 (방글라데시 기준) 하천을 따라, 강을 따라 그대로 바다로 흘러보내지게 된다. 물 오염 문제 뿐 아니라, 합성 섬유로 인해 세탁 시 생기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탄소 배출량도 33톤으로 거의 모든 환경문제에 직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패스트 패션을 비롯한 SPA 브랜드 소비를 줄이고, 소유한 옷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혹은 나아가 '자급'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https://silverlining.fit/magazine/?q=YToy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jYWxsljtzOjQ6InBhZ2UuO2k6Mjt9&bmode=view&idx=6650612&t=board>)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 충남 아산시에서 핸드메이드 바느질 공방 '모아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이수현 대표와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아협동조합의 시작은 '어쩌다' 시작되었다. 그녀는 '한땀한땀'이라는 1인 공방을 창업하게 되었고, 취미로서 배우러 온 수강생에게 재봉틀을 사용하는 방법 및 이를 활용해 직접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친목을 쌓아 나갔다. 우연한 계기로 동아리 규모의 모임을 만들었고, 2018년 '주민참여만들기 사업'을 통해 '한땀한땀'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주로 핸드메이드에 관심을 가진 경력단절여성들과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던 모임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원 수도 늘었지만 이대표는 공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고민하던 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기존 회원들과 현재의 모습인 '모아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희 협동조합은 소잉디자이너들의 활동의 장입니다.”***

소잉디자이너란 (Sewing Designer) 바느질, 재봉을 뜻하는 단어인 “소잉”에 디자이너가 결합된 용어로, 패브릭 제품을 디자인해서 바느질로 제작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가방, 침장, 의류 및 다양한 패브릭 생활용품들을 디자인하고 재봉기술을 이용해 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재봉 분야 전문 디자이너를 이처럼 소잉디자이너라고 부른다.

*“특히, 저희 '모아협동조합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잉디자이너로서, 친환경소재 제품과 리사이클링 및 업사이클링 교육 그리고 제품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1 모아협동조합에서 만든 소창행주/사진제공: 모아협동조합

모아협동조합의 소잉디자이너들은 주로 가정주부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생활 공간에서 신제품에 대한 영감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실제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느끼거나 떠오르면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제품을 만들고, 교육자료로서도 활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사진 2 모아협동조합 제품(왼쪽부터 컵홀더, 리사이클링 파우치)/사진제공: 모아협동조합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해 이대표는, 공식적으로 영리의 목적을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한데, 서로의 친목이 두터운 상태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게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다. 소잉디자이너 시험을 준비하려고 다같이 서울로 올라가 자격증을 치루는 등 조합원 간의 유대관계와 친밀도를 알 수 있는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아무래도 회원끼리의 교제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일과 사람과의 중립을 지키며 성장하는게 가장 어렵다고.

현재, 모아협동조합은 다양한 교육 및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소잉디자이너(성인/실버반) 굿즈 디자인(키링) 등의 교육사업과 '다시입다연구소' 활동 및 창공 체험 놀이터 등의 사회공헌 사업 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3 소잉디자이너 실버반



사진 4 굿즈디자인 키링반

사진제공: 모아협동조합

이대표는 앞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들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도록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각자 잘하는 일과 어려워하는 하는 일을 분별하고 협동조합 내의 개인의 역할을 찾을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견해나가고, 그렇게 내가 살고있는 이 지역에 그 재능을 흘려보내고 싶다고 언급했다.



사진 4 송곡리 마을공방 '다행'/사진제공: 모아협동조합

하반기에 염두에 두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인디자이너로서, 패스트패션의 문제점을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과 가장 잘하는 바느질로 아껴쓰고 고쳐쓰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염치 송곡리 마을공방 '다행'에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으로, 2022년 사회적경제 협업구축사업인 지역창작공동체육성사업인 창공 체험놀이터가 (매월2째주 토요일마다 진행) 아산 지역 내 창작자분들에게 네트워크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였다.



사진 5 창공체험놀이터 행사 전경/사진제공:모아협동조합

모아협동조합의 경우, 진행 중인 활동과 사업이 다양한 비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비대면 인터뷰 진행에 아쉬움이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패스트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지역 내 핸드메이드 관련 교육 및 문화 전파, 관련 홍보와 체험행사 등이 '모아협동조합' 측에서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내 하나의 문화로서 확대될 때까지 해당 분야에서 더 앞선 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